

로큰롤에 맹세는 없다

김환진(대중음악평론가)

이정현 <누구보다 더> (1988)

얼마 전에 이 노래를 듣고 좀 감동했다. 이게 1988년 노래니까 거의 25년 만에 다시 들은 건데, 이 노래가 이렇게 좋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 시절 생각도 나오 하면서 좀 감회에 젖었다. 뭔가 풋풋한 청춘의 냄새도 나오 싱그러운 여름의 이미지도 있어서 요즘 듣기엔 더 좋은 것 같다. “선셋”이니 “사일런스”니 “스카이라인”이니 “랩송(love song)”이니 하는 병맛스러운 영어 가사도 호주 교포 출신이라는 걸 강조하는 듯 보여 귀엽게 느껴진다. 뽀석이 이용식의 조카고, 당시엔 아이돌처럼 인식되긴 했지만 스스로 모든 곡을 만들던 싱어-송라이터였다. 이 노래 듣고 바로 중고 CD를 산 건 자랑. 반복해 들으면서 랩송 따라하고 있는 건 안 자랑.

Triptykon <In The Sleep Of Death> (2004)

트립티콘의 2014년 신보. 공교롭게도 음반을 받은 뒤에 H.R. 기거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 트립티콘은 토마스 가브리엘 위리어가 이끄는 둠 메탈 밴드고, 토마스 가브리엘 위리어는 1980년대의 어둠을 지배했던 (대)밴드 켈틱 프로스트의 그 위리어다. 기거는 에일리언으로 가장 유명하지만 켈틱 프로스트를 비롯해 수많은 음악가들의 이미지를 더욱 극대화시켜준 위대한 디자이너였다. 켈틱 프로스트에서 시작된 인연은 트립티콘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누가 봐도 기거의 작품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음반 커버를 보며 이 화창한 봄날에 트립티콘의 그 어둠고, 느리고, 축축 처지는 음악을 듣고 있다. 노래 제목마저도 그의 죽음을 기리고 있는 것 같다. 음악과 함께 영면하기를.

어둠 <a doom> (2007)

내가 패인(pain)이란 이름을 처음 봤던 건 인디 레이블 디플라워의 컴필레이션 앨범에서였다. 그는 전설의(?) 블랙 메탈 밴드 칼과의 키보디스트로 크레디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이후 그의 모습을 실제로 본 건 엉뚱하게도 언니네 이발관의 공연에서였다. 그는 온통 검은 옷을 입고 아대를 하고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열정적으로 키보드를 연주했다. 블랙 메탈 음악가이면서 모던 록 밴드의 세션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음악적 폭은 상당히 넓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왔다. 어둠은 패인의 또 다른 프로젝트였다. 영문으로는 ‘a doom’이라 표기했다. 블랙 메탈보다는 고딕의 느낌이 더 강하고, 몇몇 곡은 힘(HIM)의 음악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666장 한정발매로 대부분은 외국으로 돌리고 소량만을 한국에서 판매한다고 했는데 2007년에 나왔으니 이제 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내 건 108번이다. 666과 108, 뭔가 그럴싸해 보인다. 앨범 소개에는 “보너스물 포함 디럭스반”이라 쓰여 있는데, 그 보너스물은 검은색 콘돔이다...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내가 마법사란 얘기는 아니다.

채동원 <세계> (2014)

채동원은 제주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밴드 B동 301호의 리더였다. 지금은 역시 제주에 있는 인디 음악 전문 펍 B동 301호를 운영하고 있다. 두 장의 앨범을 발표했던 밴드 B동 301호는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고 있고, 채동원은 5년 만에 자신의 이름을 건 첫 개인 음반을 발표했다. B동 301호가 (당연하게도) 밴드 구성이었다면, 이번 개인 음반은 피아노와 미디를 중심으로 작업이 이루어졌다. 음악은 대체적으로 낮고 어두우며 침잠해있다. 난 이 EP가 무척이나 맘에 드는데 이걸 정말이지 정서와 무드의 승리라고 말하고 싶다. 처음에는 곡 자체의 매력보다는 분위기에 취했는데 반복해 들으면서 곡과 노랫말을 되새기게 됐다. 그래서 음반이 계절보다 좀 늦게 나온 건 아쉽다. 이 노래들을 벗꽃 아래서 듣기에는 너무 어둡다. 늦은 가을 혹은 겨울에 음반이 나왔다면 좀 더 오래 이 어두운 정서를 만끽할 수 있었을 것이다. 더불어 앨범 커버로 쓰인 렘브란트의 <명상 중인 철학자>와 뒷면에 쓰인 프리드리히의 <해변의 수도승> 그림도 멋지다.

조동익 <아침을 맞으러> (노래 김장훈) (1994)

난 영화 <장미빛 인생>의 온전한 사운드트랙이 CD로 발매됐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No. 3>와 <장미빛 인생>의 스코어를 모아 만들었던 조동익의 «Movie» 앨범이 전부라고 알고 있었다. 그러다가 중고로 나온 <장미빛 인생>의 사운드트랙을 발견하곤, 오리지널 앨범이 맞냐는 확인을 거쳐 약간의 웃돈을 주고 구매를 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로 꼽는 <장미빛 인생>에 무려 동익이 형이 음악을 담당한 사운드트랙이기 때문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다. 1~2분 안팎의 짧은 스코어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약 40여 분 동안 펼쳐지는 음악들은 그냥 한 곡이라 해도 좋을 정도로 긴밀한 호흡과 일관된 정서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름답다. 그 허름한 비디오방에서 봤던 영화의 기억과 마지막에 흘러나오던 김장훈의 목소리가 잊히지 않는다. 장훈이 형이 아직 이상해지기 전.

윤명운 <태양아씨> (1995)

내가 지금까지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산 음반은 아시아나의 CD였다. 희귀 앨범을 전문으로 파는 매장에서 전화가 왔다. 아시아나 CD가 들어왔는데 7만 원에 사겠냐고. 당시 아시아나 CD는 매물이 거의 없었다. 약 5초 정도 고민을 한 나는 사겠다고 했다. 2년 뒤 아시아나 CD는 재발매됐다. 향류직 경매에 윤명운의 유일한 CD가 올라왔다. 보는 순간 이건 내가 무조건 갖는다는 생각을 했다. 지금껏 나는 그 어디서도 윤명운의 CD를 본 적이 없다. 실물로도 그렇고 중고매장 사이트, 혹은 누군가 중고로 팔겠다는 글에서도 본 적이 없다. 가끔씩 여자친구 좀 보여달라는 지인들에게 “내 여자친구는 유니콘 같은 존재다. 존재한다고는 하는데 아무도 본 사람은 없다.”는 드립을 치곤 하는데, 윤명운의 CD가 딱 그랬다. 워낙 적은 수량이 풀린 것인지, 아니면 앨범이 정말 좋아서 아무도 팔려고 안 하는 것인지, 절대 중고시장에 나오질 않았다. LP 역시 구하기가 어렵고 이미 한참 높은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 이제 윤명운 CD가 내가 가장 많은 돈을 주고 산 음반이 되었다. 처음 생각했던 금액을 조금 초과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내 손에 들어왔다. 뿌듯하다. 이제 몇 장 정도만 제외하면 그렇게 갖고 싶은 CD는 별로 남지 않았다.

버벌 진트 <Do What I Do> (2004)

토요일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고스톱을 쳤다. 한 달 전쯤 정말 오랜만에 고스톱을 쳤는데 그때 그 자리에 없던 멤버 하나가 이번에 새롭게 줬다. 자신의 맞고 사이버 머니가 20억이라며 호기롭게 덤벼들었지만 처절하게 발렸다. 우리는 “미연시 같은 사이버 연애만 하다가 실제로 하려니 될 리가 없다.”며 놀렸고, 나는 특별히 버벌 진트의 이 랩을 들려줬다. 누구를 겨냥하고 쓴 건지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정말 이 당시의 VJ는 뭘 해도 다 잘했다. 데프콘과도 좋았던 시절. 데프콘은 이미 기대를 많이 내려놓았지만, 이런 곡들 때문에 VJ는 그렇게 개발라드랩을 해도 쉽게 놓지를 못하겠다.

고여 있던 물처럼 악취가 나
노력 따윈 없었다는 게 딱 티가 나
절대로 섞일 수는 없어 당신과 나
좋게 봐주려 해도 체급이 맞질 않아

Esquizofrenia <Tumbas De Almas> (2013)

메탈킹덤에서 누가 추천해 들어봤는데 이걸 정말 콜롬비아 개깅카 스래쉬. 추천한 사람은 ‘정글 스래쉬’라 부르던데 정말 잘 어울리는 표현이다. 얼마 전 한밤에 이 음악을 들으며 귀가하는데 좀 공포스러운 정도였다. 마치 앞이 보이지 않는 정글을 헤쳐 나가듯 숨이 턱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의도한 것인지, 현실적인 여건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운드 프로덕션의 승리. 무엇보다 세폴투라의 저 찬란했던 시절, 그러니까 «Schizophrenia»와 «Beneath The Remains» 시절의 그 밀도 끝도 없이 달리고 조여오던 음악이 연상돼서 좋았다. 그 시절의 환상적인 재현이다. ‘Esquizofrenia’란 팀 이름은 정신분열증을 뜻한다 한다. 세폴투라의 «Schizophrenia»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건 우연일까. 나에겐 움니엄 개더럼의 «Beyond»와 함께 올해 최고의 헤비메탈 앨범. + 콜롬비아의 수도는 보고타. 수도만 잘 알고 있어도 상식왕 대접을 받을 수 있다. 호주의 수도는 시드니가 아니라 캔버라, 터키의 수도는 이스탄불이 아니라 앙카라, 부루마블에 속지 말자.

트윈 폴리오 <웨딩케익> (1973)

어렸을 때 뭣도 모르고 좋아했던 노래. 그때는 이렇게 슬픈 사연을 가진 노래인지 모르고 좋아했다. 지금도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다른 이와 결혼해야 하는 사연들은 술하게 많겠지만, 이와 같은 정서를 가진 노랫말은 다시 나오기 힘들 거라 생각한다. 딱 그 시절에 맞는 (슬픔마저도) 낭만적인 노랫말. 송창식과 윤형주의 화음도 아름답다. 이 노래는 김동완 기상정보관의 폴레카메라에 쓰이기도 했는데 나에겐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으로 남아있다. 당시에 김동완 옹이 가짜 결혼식의 주례를 서고, 여러 우스꽝스러운 상황 속에서 축가로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다. 코미디언 단덕수가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를 듣고 있던 김동완 옹이 ‘땡미’하는 표정으로 병처럼하던 모습이 기억난다. 뜬금없이, 단덕수를 기억하는 이는 몇이나 될까?

Pat Boone <Holy Diver> (1997)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또 하나의 괴작. 한국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럴로 유명한 스탠더드 레전드 팻 분의 헤비메탈 커버 모음집이다. 주다스 프리스트의 <You've Got Another Thing Comin'>, 딘 퍼플의 <Smoke On The Water>, 메탈리카의 <Enter Sandman>, 오지 오스본의 <Crazy Train> 같은 주옥같은 헤비메탈 명곡들이 팻 분의 입을 통해 재해석됐다. 한국으로 치면 나훈어나 남진이 시나위의 <크게 라디오를 켜고>나 백두산의 <주연배우>를 다시 부른 셈이다. 수록곡은 다 헤비메탈/하드록이지만 팻 분의 이미지를 배반하지 않는, 관악기가 중심이 된 스탠더드/스윙 스타일로 꾸며져 있다. “도전인가? 망명인가?”라는 역대급의 문구가 해설지 제목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프로젝트가 마냥 거대한 농담 같지는 않다. 팻 분은 정말 진지하게 노래하고 있고, 편곡에도 많은 신경을 썼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자레스의 <Love Hurts> 커버는 새로운 창작이라 해도 될 정도로 멋지게 소화했다. 그리고 리치 블랙모어나 로니 제임스 디오 같은 원작자들을 직접 초빙해 앨범에 참여시키기도 했다. 이 노래의 뒤에서 각 잡고 기합을 넣고 있는 이는 다름 아닌 이제 고인이 된 로니 제임스 디오다. 금목걸이와 반짝이는 눈, 그리고 스티커 문신은 덤이다.

들국화 <우리> (1995)

얼마 전에 한 지인이 충공깽 수준의 언니네 이발관 공연을 관객 모두가 좋아하는 걸 보면서 ‘내가 이상한 건가? 나만 쓰레기인 건가?’란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들국화의 음반을 듣는 내가 그 기분이다. 물론 들국화의 새 음반이 언니네 이발관(이석원)의 라이브(노래 실력)만큼 후지진 않다고 생각한다. 충분히 기본빵은 했다. 하지만 이 음반이 그토록 감동적인 명반인가? ‘27년 만의 재결성’ 같은 정서적인 부분을 떼어내고, 난 이 음반이 18년 전에 전인권 혼자서 발표한 들국화의 세 번째 앨범과 비교해 대체, 무엇이, 그토록, 훌륭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곡의 유장함이나 설득력이란 측면에선 <우리>나 <분명하게>가 <걷고, 걷고>보다 더 와 닿고, 로킹한 사운드로는 <노래여 잠에서 깨라>보다 <기분전환>이나 <단순하게>가 더 직관적이고 명료하다. 보컬의 상태도 그때가 월등히 뛰어나다(난 1990년대 초중반이 전인권 보컬의 절정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들국화 3집은 철저히 묻혔다. 결국 이걸 27년 만에 전인권과 최성원이 함께 했다는 감동과 전인권의 재기, 그리고 주찬권의 죽음이 더해져 만들어낸 신화일 것이다. 물론 음반을 평가하는데 있어 이런 정서적인 부분을 간과할 수 없고, 레전드 프리미엄이 붙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 정서적인 부분과 프리미엄이 음반에 대한 온전한 평가를 잡아먹고 있는 모양새다. 들국화와 함께 청춘을 보낸 이들의 감동을 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 글밥으로 먹고 사는 이들이라면 좀 더 냉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말로 이 음반이 그토록 훌륭한가? 정말로 이 음반이 들국화 3집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나? 아니, 2년 전에 나온 또 다른 원년 멤버 조덕환의 앨범보다 뛰어나게 들리는가?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